

어디에서나 지속 가능한, 누구나 포용 가능한: '문화 이동성' 개념 재고찰

전민지 (사회적가치연구원 펠로우)

지난 2021년, 저는 사회적가치연구원 4기 펠로우십을 통해 <덧없는 것을 지속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미술 실천>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고 동명의 미술 평론을 비평 잡지 Gravity Effect 7호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5기 펠로우십에서는 미술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 고찰에 '포용성'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확장된 '문화 이동성(cultural mobility)'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례연구를 통해 저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1. 예술가들의 이동은 국경을 넘어야만 온전히 기능하는가?

예술가들은 종종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국제 레지던시에 참여하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작업 및 전시 활동을 지속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의 영감은 창조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예술 분야의 문화 이동성 고취는 현 시대의 중점적인 사안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화 이후 미술가들은 '현대판 유목민'이 되어 국경을 넘나들고, 다른 도시로 이주하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비행과 운송으로 인한 탄소 발자국의 문제가 언제나 수반됩니다. 이에 '이동성'은 언제나 국경을 직접 넘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인지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높은 문화 이동성과 환경 및 생태 보호는 과연 양립 불가능한 개념일까요? 현대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팬데믹 문제와 같이 이동이 금지된, 혹은 이동이 위험해진 상황이 아니더라도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하거나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예술가의 이동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요?

2. 이동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가? 모두를 포용하는가?

예술가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고찰이 필요한 지점은 예술가의 범주에서도 소외되는 이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장애 예술가나 난민 예술가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그간 문화 이동성이 간과하거나 배제해온 부분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기존 이동의 방식은 본래 의도와 달리 평등하지 않으며, 나아가 폭력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이동'해야 평등한 기회를 갖게 될까요? 그 누구도 실제로는 이동하지 않고 메타버스 등 가상 세계에서 레지던시를 진행한다다면 어떨까요? 형평성과 포용성, 나아가 다양성을 약간이나마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지구적 상황으로 인해 일종의 실험적 형식으로 등장했던 온라인 기반 예술 활동은 앞으로도 초연결사회를 살아갈 모두에게 매초 지구 곳곳에 닿는 정보를 습득해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시대의 급류가 평등과 포용이라는 개념을 현실화 및 다층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지 묻고자 합니다.